티베트 자치구서 13人 '게쎄 하람빠' 탄생

400년 전 시작 겔룩파 최고 학위
20년간 강원 교육 후 엄격한 시험
역대 달라이라마 3명만 지닌 자격
강원강사 · 본말사 주지 소임 가능

박영빈 객원기자



새롭게 탄생한 13인의 '게쎄 하람빠' 스님들. 사진출처=중국 서장망

티베트 불교 4대 종단 중 하나인 겔룩파의 최고 학위인 '게쎄 하람빠'가 새롭게 탄생했다. 중국의 '신화통신' '중국 서장망'은 4월 3일, 티베트 비구스님 13명이 라싸에서 열린 시험을 통과하고 게쎄 하람빠 학위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게쎄' 학위는 티베트어로 '선지식'을 뜻하며 약 20년간의 전통강원교육 뒤, 토론과 필기시험을 거쳐 본산 방장 스님들의 심사 하에 주어지는 법계다. 400여 년 전 시작된 이 전통은 교학과 수행을 깊이 겸수하는 법맥을 잇기 위하여 겔룩파에서 마련된 제도다. 게쎄학위를 받은 스님들은 각 강원의 강사를 비롯해 본말사 주지 등 주요 소임을 맡는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인명, 아비달마, 중관, 반야, 율장의 5대 경론에 모두 통달해야한다. 게쎄학위는 3단계로 나뉘며 가장 높은 학위가 '하람빠(上士)'로 그 시험이 매우 엄격하고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게쎄 하람빠 학위를 받은 이는 현 달라이라마를 포함 3명뿐이다. 겔룩파 외의 타 종단들도 '켄뽀(대사)', '로뽄(논사)' 등의 법계제도로 교학의 연찬을 장려하고 있다.

4월 2일 라싸의 조캉사원에서 열린 시험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됐다. 응시자와 심사위원들이 함께 1시간 가량 예불을 올리고 9시부터 토론시험이 시작됐다. 응시자들은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해 티베트족 자치구에 산재한 강원에서 전통교육제도를 마친 학인스님들로 지난해 9월 응시자격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다.

3시간에 가까운 치열한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13인의 스님들이 게쎄 하람빠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라싸의 쎄라사원에서 응시한 롭상 딱따 스님이 수석을 차지했다. 롭상 스님은 "30여 년 전 고향을 떠나 라싸로 와 공부를 시작했다. 들이나 산에서 소와 양을 치던 소년이 이런 영예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현재 게쎄학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인도의 망명 티베트 사찰들의 강원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강원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티베트 자치구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은 중국정부의 종교위원회가 마련한 시험표준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 시험에는 티베트어 경전뿐만 아니라 한역경전에 대한 시험도 포함돼 있다. 반면 인도의 강원들에선 전통적인 방식의 자체시험을 진행한다. 2018년 중국정부는 인도에서 게쎄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스님들을 인정하지 않고 강원에서 추방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인도에서 게쎄학위를 받은 한 티베트 스님은 "중국의 시험안은 티베트불교와는 교리적 해석이 다른 중국불교의 교학을 비롯해 친공산당 성향의 애국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하게 티베트 불교의 교학은 연찬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티베트 자치구의 소식통도 "대부분의 학인스님들이 인도 출신의 게쎄스님들께 배우길 원한다. 중국정부의 시험을 따른 게쎄스님들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100개소 이상 사찰 및 종교시설 파괴

종교시설 반군 숨긴다 의혹일어
민주진영 사찰 파괴 · 스님 체포



이달초 군부의 방화로 파괴된 사찰에서 불에 탄 불상이 방치돼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1년 전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 미얀마 정부를 전복시킨 군부가 미얀마 전역에서 100개소 이상의 불교 및 종교시설을 파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 30일,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미얀마 현지의 안타까운 소식을 보도했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작년 말부터 군부는 미얀마 중부, 북서부, 남동부에서 민간인 지역에 포격공습을 실시했다"고 전하며 "현재 군부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소식을 전하는 비영리 뉴스 웹사이트인 '더 이라와디' 역시 "군부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평화로운 시위와 시민 불복종 캠페인이 무장저항으로 바뀌었다. 국가의 존경을 받는 불교교단들조차 군부의 공격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사가잉 지역에서만 최소 30개소, 마그웨 지역에서는 20개소 이상의 사찰들이 군부에 의해 파괴되거나 습격을 받았으며, 민주진영의 스님들이 체포됐다.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우세인 친(Chin) 지역에서는 약 35개의 교회와 15개의 관련시설도 파괴된 것으로 전했다. 군부는 종교시설들이 반군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사찰에 불을 놓거나 강제로 건물을 점령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달 초 사가잉 지역의 랫판바우 마을에선 군부가 사찰에 포격을 가해 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또 2월 말 같은 지역 친폰마을 한 사찰에서는 교리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있던 80여 명의 초등학생을 36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군을 이끌어 내는 잔학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 주민은 "주지스님이 군부군과 협상하기 위해 빈손으로 나아가자 스님에게 총을 겨누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민주진영의 출가자 네트워크의 일원인 우 와랴마 스님은 사찰의 파괴와 출가자 체포를 꼬집으며 "군부는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불교와 정법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실제 탑과 사찰을 조성하는 불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보여주기 식에 불과하다. 군부는 자신들의 정권이 위협이 감지된다면 공격할 의지를 거듭해서 내비쳤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들은 권력에 위협이 되는 출가자들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의 찰스 마웅 보 추기경은 "종교시설들은 국제적으로 비전투 구역이며,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장소이다. 군부는 이를 트집 잡아 반군이 있다는 명목으로 전투가 없는 때에도 교회와 사찰을 포격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지인은 "군부는 의도적으로 종교시설을 공격하는 것이다. 종교를 중심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간다 최초 불교 초등학교 개교

붓다라키타 스님, '평화학교'
시민 무료 교육기회 제공 목표



우간다 최초의 불교 초등학교가 문을 열었다.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등 외신은 4월 4일 "우간다 최초의 스님인 반테 붓다라키타(Bhante Buddharakkhita)가 이끄는 우간다 불교센터(Uganda Buddhist Centre, UBC)가 최근 불교초등학교를 공식 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평화학교'(Peace school)로 불리는 이 학교의 유치원 프로그램에는 24명의 아이들이 등록돼 있다. 아이들은 3~5세 영유아로, 불렝가(Bulenga) 출신이 대부분이다. 3명의 담임교사와 2명의 교직원이 아이들의 교육과 교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우간다불교센터는 "평화학교의 목표는 아이들이 훗날 성실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학습 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내면과 외면의 평화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 교육에 기반하고 있지만 '모든 인류를 연결하는 보편적 가치'로 설명되는 우분투(UBUNTU) 철학과 같은 전통 아프리카 윤리와 가치도 가르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분투란 아프리카에서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인간애를 의미한다.

평화학교의 공식 개교는 지난 3월 케냐 주재 태국 대사 사시리트 탕굴라트가 우간다를 방문했을 당시 이뤄졌다. 탕굴라트 대사는 2020년 8월에도 우간다불교센터를 방문, "우간다에 불교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붓다라키타 스님은 "불교가 아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로 전파된 것이 너무 기쁘다"며 "불교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간다 사람들과 태국 사람들이 불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아이들이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6년 우간다 카톨릭 가문에서 태어난 붓타라키타 스님은 1990년 인도 여행 중 처음으로 불교를 접했다. 1993년 명상수행을 시작으로 태국 · 미얀마 등에서 불교를 공부했다.

이후 2002년 캘리포니아의 타타가타 명상센터에서 인도 소승불교 중 상좌부 불교로 출가해 미국 · 브라질 등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불법의 씨앗 : 아프리카에서의 불교의 출현(Dahma Seeds : Sasana Abhiwurdhi Wardhana Society)〉(2006) 등이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인도, 기원전 3세기 석탑 해체보수 착수

문화부 장관 현장 방문
개수 환경 등 개보수도



인도 북부 하리아나(Haryana)주(州) 야무나나가르(Yamunanagar)에 위치한 기원전 3세기 석탑이 해체보수 작업과 함께 개조될 예정이라고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즈(the Hindustan Times)가 4월 3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날 "지난달 31일 문화부 장관인 디벤더 싱하 바블리(Devender Singh Babli)가 현장을 방문해 관료들에게 석탑 보수를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 100㎡ 크기의 이 석탑은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주요 관광 명소이자 하리아나주 내에 있는 39개 국가보호기념물 중 하나다.

석탑 보수와 함께 관광객을 위한 환경 개선도 실시한다. 지역 당국은 "전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불교도들을 위해 유적지 인근에 휴게소를 지으라는 장관 지시가 있었다"며 "앞서 휴게소 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어 공사에는 착수했으나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깨끗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수 환경을 갖추는 등 미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공공사업부에 이미 개보수를 위한 견적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